

## 수원시민의 생활체감과 2026년 경기 전망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미 전문연구위원  
정형안 위촉연구원

### 요 약

#### ■ 수원시민 10명 중 8명 '보통 이상' 만족, 불안의 핵심은 '미래 불확실성'

- 삶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다수인 가운데 청년·1인가구·자영업자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불안 요인은 전 세대 공통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1순위로 나타남

#### ■ 물가·생활비 부담이 '2026년 체감경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

- 전 세대가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 생활형편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절반 수준이지만 악화 요인으로 소득 감소·물가 상승이 크고, 노년·1인가구·비혼·무급가족종사자 등 취약집단에서 악화 체감
- 2026년 경제이슈도 체감 물가 상승이 1순위로 나타나 생활비 부담 대응 필요

### 시 사 점

#### ■ 수원시 생활비 절감 중심의 체감정책 전환, 세대·계층별 지원 설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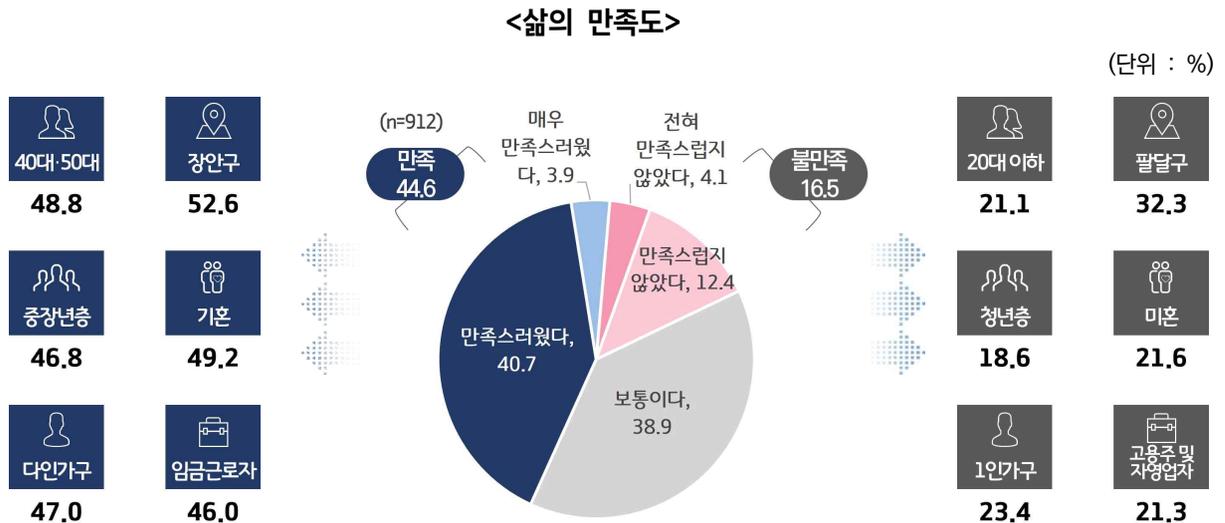
- 수원시는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고정비·필수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일자리 회복을 통한 소득 기반 강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 청년은 도전·성취(역량·일자리)와 번아웃 완화, 중장년·노년은 건강·관계 회복을 강화하며, 노년·1인가구·비혼·무급가족종사자 등 생활형편 취약집단에는 소득·돌봄·고용연계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우선 설계할 필요

## 1. 수원시민의 2025년 생활체감

### □ 수원시민 삶의 만족 높지만(보통 이상 83.5%), 세대·가구형태 등 특성별 체감 격차 존재

- 청년·1인가구·자영업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아, 생애주기·가구형태·고용형태에 따른 삶의 체감 격차 확인

- 만족 비율은 중장년층(46.8%), 다인가구(47.0%), 기혼자(49.2%), 임금근로자(4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청년층(21.1%), 1인가구(23.4%), 고용주·자영업자(21.3%)는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체감 격차가 확인됨



1) 질문 : 올해(2025년) 귀하의 삶은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 □ 2025년 불안의 핵심은 '미래 불확실성'

- 불안의 '공통 분모'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청년층은 심리적 소진, 중장년·노년층은 건강 위험 때문에 불안 체감
  - 모든 세대에서 '미래 불확실성'이 1순위였으며, 2순위 요인은 차이를 보임. 청년층은 심리적 피로, 가족/대인관계 스트레스, 노년층은 건강문제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타남

#### <심리적 불안 요인>

(단위: %)

분야	전체	세대별		
		청년	중장년	노년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45.5	42.3	49.1	38.9
심리적 피로(번아웃, 무력감)	20.3	31.2	15.0	7.4
건강 문제(신체적 질병)	15.4	7.1	17.8	33.6
가족/대인관계 스트레스	12.1	12.9	11.6	11.8
외로움·사회적 고립	3.4	4.0	3.2	2.2
기타	3.3	2.4	3.4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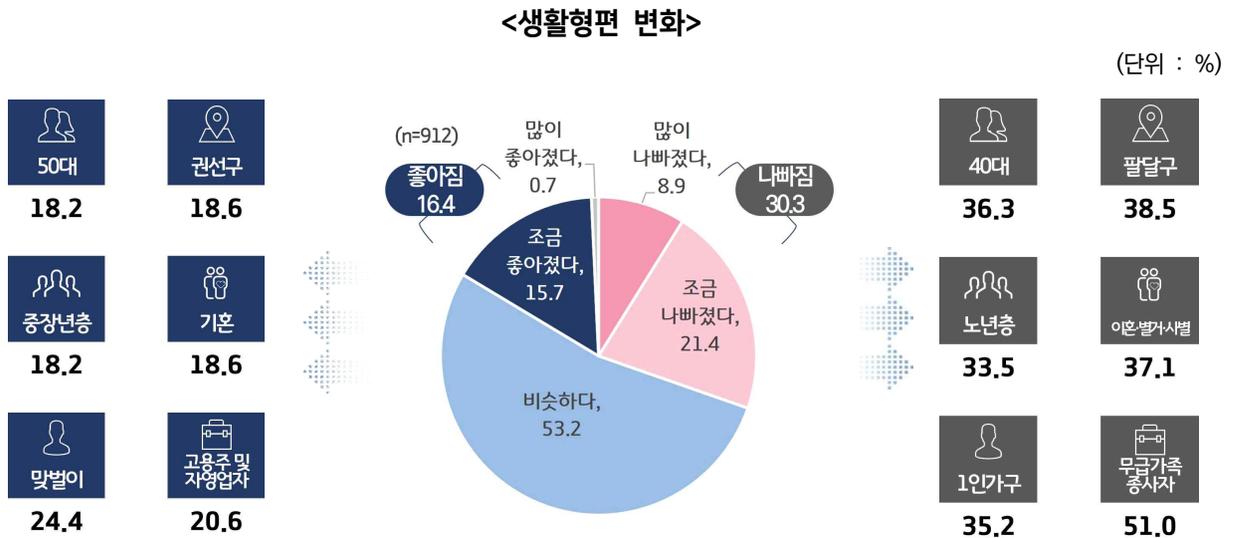
1) 질문 : 올해(2025년) 귀하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협했던 심리적 불안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2) 특별한 불안 요인 없었음 응답 제외

## □ 수원시민의 절반 ‘생활형편 전년과 비슷’…1인가구, 이혼·별거·사별, 무급가족종사자는 ‘악화’ 체감 두드러져

● 전반적으로 ‘현상 유지(비슷하다)’가 우세하지만, 노년층·1인가구·비혼(이혼·사별 포함)·무급가족종사자 등에서 악화 응답이 높아 가구·고용형태에 따른 생활 안정 격차 확인

- 1년 전에 비해 생활형편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장년층(18.2%), 기혼(18.6%), 맞벌이(24.4%), 고용주 및 자영업자(20.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노년층(33.5%), 이혼·별거·사별(37.1%), 1인가구(35.2%), 무급가족종사자(51.0%)에서 높게 나타남



- 1) 질문 : 현재 귀댁의 생활형편은 1년 전에 비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혹은 비슷합니까?
- 2) 생활형편은 소득수준과 소비지출을 고려하여 가계생활을 해나가는 수준으로 살림살이의 형편을 의미

● 지난 1년 전 대비 소비 지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

- 가구형태별로는 소비지출 증가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인가구에서 지출 감소 응답이 다소 높음  
 - 고용형태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비지출 증가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고용주 및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증가 비율이 낮고 감소 비율이 높음

### <소비지출 변화>

(단위: %)

구분		줄었음	비슷함	늘었음
전체		16.4	38.2	45.4
가구형태별	1인가구	20.0	34.9	45.1
	다인가구	15.8	38.8	45.4
고용형태별	고용주 및 자영업자	21.7	38.7	39.7
	임금근로자	15.3	38.3	46.4
	무급가족종사자	8.8	19.1	72.1
	기타	18.9	39.3	41.8

- 1) 질문 : 현재 귀댁의 소비지출은 지난 1년 전에 비해 더 늘었습니까, 더 줄었습니까, 혹은 비슷합니까?

## □ 생활물가 부담, 수원시민이 꼽은 ‘가장 시급한 문제’

- 수원시민은 가장 해결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생활문제로 치솟는 생활물가 및 가계경제 부담을 응답함.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및 교통 혼잡(17.5%),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및 소득 불안(14.7%), 주거 안정성 부족(14.1%) 순
- 4개 구 모두 생활물가 및 가계경제 부담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팔달구·권선구는 생활물가 부담, 장안구는 일자리·소득 불안, 영통구는 주거 안정성 부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 세대별로 청년층은 일자리·주거, 중장년층은 생활물가, 노년층은 생활물가와 돌봄안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응답

### <해결이 시급한 수원시민 생활문제>

(단위: %)

구분	전체	구별				세대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청년	중장년	노년
치솟는 생활물가 및 가계 경제부담	35.2	32.2	36.4	40.9	33.0	28.4	39.0	38.8
출퇴근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및 교통 혼잡	17.5	17.8	15.7	19.6	17.9	17.5	18.4	13.8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및 소득 불안	14.7	20.9	16.3	9.2	11.2	20.0	11.6	12.4
내집 마련, 노후주택 개선 등 주거 안정성 부족	14.1	12.0	11.1	12.3	20.0	18.8	11.7	11.2
(육아 및 노인·장애인) 돌봄 부담	6.0	5.7	6.7	2.6	7.3	6.3	5.0	9.3
생활 편의시설 부족 및 관리 미흡	5.8	5.4	7.4	4.1	5.5	4.8	6.6	5.6
범죄, 재난 등 안전·방법 불안	3.9	2.7	3.5	9.0	2.4	2.3	4.2	7.1
쓰레기·도로 청결 등 환경 관리 미흡	1.2	1.2	1.4	1.1	0.9	0.6	1.4	1.7
기타	1.6	1.9	1.5	1.2	1.8	1.4	2.2	0.0

1) 질문 : 요즘 귀하께서 수원시민으로서 해결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생활문제는 무엇입니까?

## 2. 수원시민의 2026년 기대와 전망

### □ 전 세대 공통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적 안정, 청년은 성취/도전, 중장년·노년은 건강 우선

- 2026년에 수원시민은 개인의 삶에서 경제적 안정(37.0%)과 건강증진(19.0%)이 긍정적으로 변하기를 희망
- 모든 세대가 경제적 안정을 가장 희망, 두번째로 높은 응답으로 청년은 새로운 도전과 성취(18.5%)였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건강증진으로 나타남
- 노년층은 ‘사회적 관계 확대’(11.2%) 응답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관계·참여 영역의 개선 욕구가 더 큼

### <개인 삶에서 기대하는 변화>

(단위: %)

구분	전체	세대별		
		청년	중장년	노년
경제적 안정(소득 증가, 부채 감소 등)	37.0	37.9	38.0	29.7
건강 증진(체중관리, 질병 회복, 규칙적인 운동 등)	19.0	14.3	21.2	23.7

구분	전체	세대별		
		청년	중장년	노년
마음의 평안/행복 증진(스트레스 감소, 긍정적인 사고 등)	13.3	9.5	14.9	17.6
새로운 도전과 성취(경력 개발, 자격증 취득 등)	12.6	18.5	9.1	9.8
여가취미 활동(여가 시간 확보, 새로운 취미 시작 등)	11.2	12.8	10.8	8.1
사회적 관계 확대(새로운 만남, 사회참여 증가 등)	6.0	5.1	5.4	11.2
기타	0.9	1.9	0.5	0.0

- 1) 질문 : 내년(2026년)에 귀하의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2) 기대하는 변화 없음 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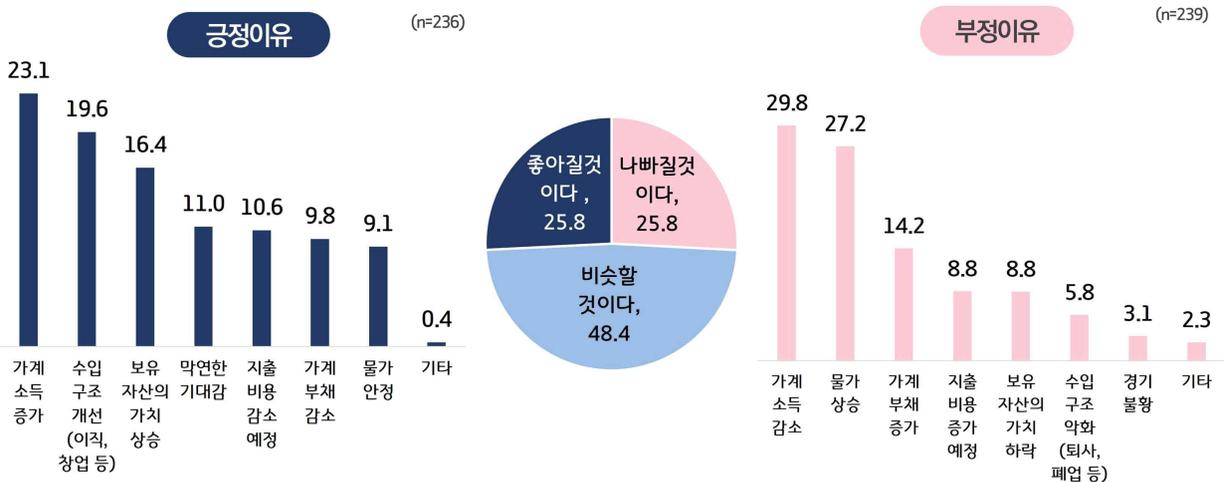
## □ 생활형편 전망은 ‘현상 유지’가 절반 수준…주 악화요인은 가계소득 감소와 물가상승

### ● 수원시민의 48.4%는 1년 후에도 생활형편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

- 수원시민의 25.8%는 1년 후 생활형편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개선 요인으로는 가계소득 증가(23.1%)와 이직, 창업 등 수입구조 개선(19.6%) 때문
- 수원시민의 25.8%는 1년 후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주 원인은 가계소득 감소(29.8%)와 물가상승(27.2%)

### <1년 후 생활 형편 전망>

(단위 : %)



- 1) 질문 : 현재 귀댁의 생활형편은 1년 후에 현재 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혹은 비슷할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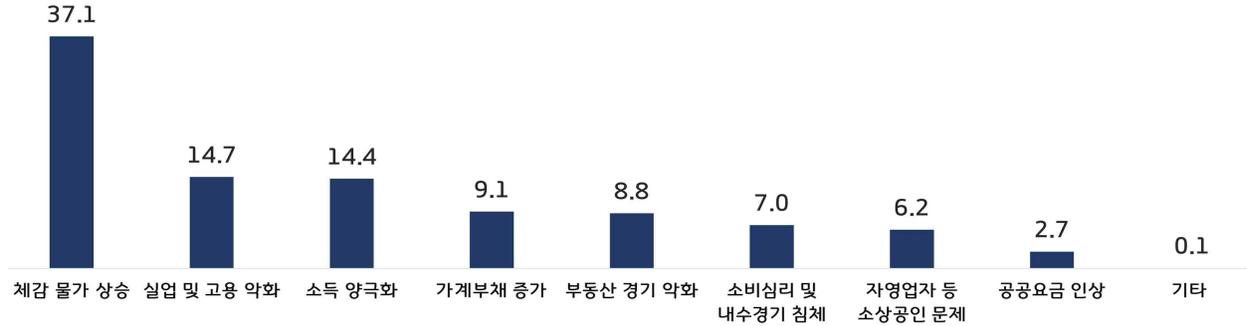
## □ 수원시민이 생각하는 2026년 경제이슈 1위는 체감 물가 상승, 다음으로 실업 및 고용 악화

### ● 수원시민, 체감 물가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과 분배문제 또한 우려

- 수원시민의 37.1%가 체감 물가 상승을 2026년 경제 이슈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실업 및 고용 악화(14.7%), 소득 양극화(14.4%)순

## &lt;2026년도 경제 이슈(1순위)&gt;

(단위 : %)



1) 질문 :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2026년 수원시민의 경제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고물가 우려가 공통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세대별·고용형태별로 체감하는 위기 요인은 상이함

- 전 세대에서 물가 상승을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인식한 가운데, 청년층은 부동산 경기 악화(11.7%), 중장년층은 실업 및 고용 여건 악화(18.0%), 노년층은 소득 양극화 심화(17.7%)를 타 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식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가계부채 증가(39.0%)에 대한 위기 인식이 두드러졌으며,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25.8%)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lt;2026년도 경제 이슈(1순위) : 세대별, 고용형태별&gt;

(단위 : %)

	체감 물가 상승	실업 및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경기 악화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 침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문제	공공요금 인상
청년	39.5	9.9	12.0	9.8	11.7	10.1	4.4	2.5
중장년	35.1	18.0	15.2	8.7	7.9	5.8	6.6	2.8
노년	38.7	14.2	17.7	9.0	4.6	3.1	9.7	3.1
고용주 및 자영업자	32.1	14.9	13.1	8.7	4.5	0.7	25.8	0.0
임금근로자	38.2	14.3	15.7	9.4	9.6	5.8	4.3	2.7
무급가족종사자	46.7	0.0	3.3	39.0	0.0	4.0	0.0	7.1
기타	34.6	16.7	11.7	5.8	8.5	12.5	7.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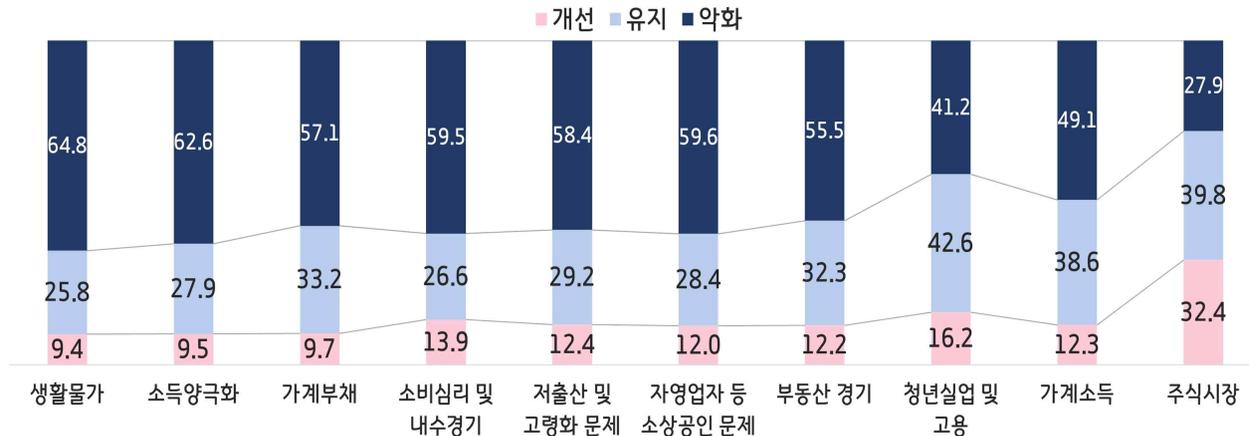
1) 질문 : 요즘 귀하께서 수원시민으로서 해결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생활문제는 무엇입니까?

● 수원시민은 내년 생활물가와 소득 양극화가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우려

- '내년도 경제이슈 개선정도' 문항에서 수원시민은 생활물가와 소득 양극화가 2025년 대비 2026년에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남. 이는 앞선 결과(체감 물가 상승 1순위)와 맞물려, 시민들이 내년 경제환경에서 체감경기와 생활비 부담 심화를 가장 크게 예상
- 반면 주식시장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악화 전망보다 우세해, 실물·생활경제에 대한 비관 전망과 달리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존재

### <2026년도 경제 이슈 개선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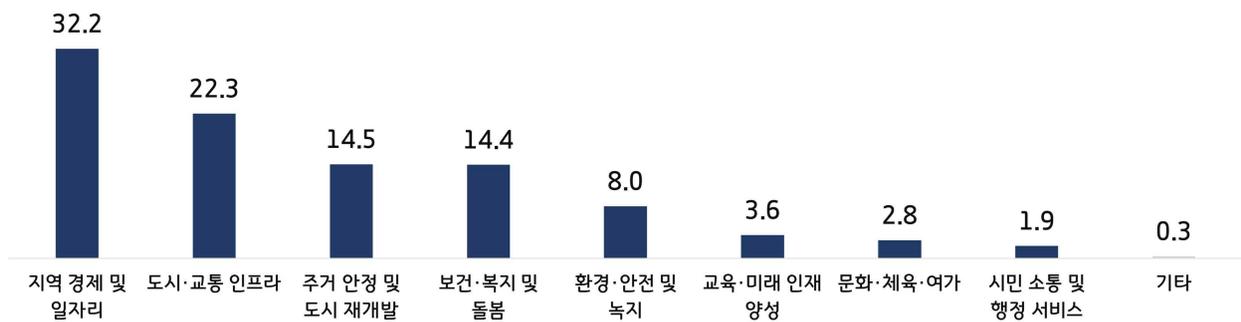
1) 질문 : 귀하께서는 다음의 경제 이슈가 올해(2025년) 대비 내년(2026년)에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예상되는 개선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원시민이 바라는 2026년 재정 방향은 지역경제 및 일자리 확충

- 2026년 수원시가 예산을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가 32.2%로 1순위를 차지
  - 시민들은 단기적인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과 고용 기회 확충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정책 기대

#### <예산 투자 필요 정책 분야(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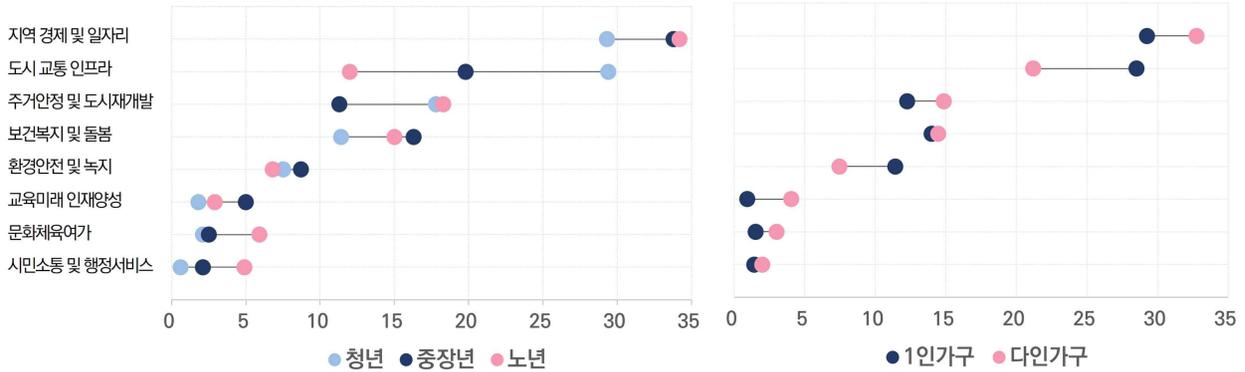


1) 질문 : 내년(2026년) 수원시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 및 일자리'는 노년·다인가구, '도시 교통 인프라'는 청년·1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투자 요구 높음
  - '지역경제 및 일자리' 투자는 노년층(34.2%)과 중장년층(33.8%), 다인가구(32.8%)의 요구가 두드러짐
  - '도시 교통 인프라' 투자는 청년층(29.4%)과 1인가구(28.5%)의 요구가 높게 나타남. 교통분야는 세대별(격차: 17.4%p), 가구원수별(격차: 7.3%p) 요구 격차가 가장 큰 정책 분야로 확인됨

### <예산 투자 필요 정책 분야(1순위) : 세대별, 가구원수별>

(단위 : %)



1) 질문 : 내년(2026년) 수원시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3. 요약 및 시사점

### □ 삶의 만족, 불안, 생활 형편의 격차 뚜렷...취약집단을 우선한 '체감 개선' 필요

- 수원시민 10명 중 8명은 보통 이상의 삶의 만족 인식, 그러나 청년·1인가구·자영업자에서 불만족이 두드러짐
  - 삶의 만족도는 중장년층·다인가구·기혼·임금근로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청년층·1인가구·고용주/자영업자는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생애주기·가구형태·고용형태에 따른 체감 격차가 확인됨
  - 생활형편은 절반가량이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응답했으나, 노년층(33.5%), 1인가구(35.2%), 이혼·사별 등 비혼(37.1%), 무급가족종사자(51.0%)에서 악화 체감 비율이 높아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 필요성이 드러남

### □ 경제적 안정은 전 세대 공통 과제...세대별로는 성취·건강·관계 욕구 차이 존재

- 청년은 '도전'과 '성취', 중장년·노년은 건강에 대한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26년 개인 삶에서 기대하는 변화는 전 세대 공통으로 경제적 안정(전체 37.0%)이 1순위임. 다만 청년층은 '새로운 도전과 성취'(18.5%) 비중이 높고, 중장년·노년은 '건강 증진' 비중이 높으며, 노년층은 '사회적 관계 확대'(11.2%)가 상대적으로 높음. 동시에 불안 요인은 전 세대 공통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1순위(전체 45.5%)이며, 청년은 '번아웃'(31.2%), 노년은 '건강문제'(33.6%)가 두드러짐
  - '경제적 안정'을 공통 정책 축으로 설정하되, 세대별로 삶에서 기대하는 변화인 성취·건강·관계 회복을 정책 목표로 차별화할 필요 있음

### □ 물가·생활비 부담이 '내년 체감경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

- 체감 물가 상승이 2026년 경제이슈 1순위, 소비지출 증가는 이미 현실화
  - 수원시민의 37.1%가 2026년 경제이슈로 '체감 물가 상승'을 선택했고, 실업·고용 악화(14.7%), 소득 양극화(14.4%) 우려가 뒤를 이음. 또한 지난 1년 소비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이 45.4%로, 생활비 부담 확대가

이미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고 있음

- 수원시는 체감경기 악화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추진하고, 지역경제·일자리 회복을 통한 소득 기반 강화(예: 청년·중장년 재취업, 상권·소상공인 회복, 지역 일자리 매칭·훈련 등)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전개할 계획
- 수원시는 정책대상별 수요에 맞춘 생활비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정비·필수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접근은 ‘새빛 생활비 패키지’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세대별 주요 경제 이슈와 예산투자 필요 정책을 종합할 때,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자취·독립 초기 이사비 지원,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에 대응한 소득 공백 완화형 생활비 지원, 노년층의 경제·고용 지원 수요를 반영한 단시간·근거리 기반 유급 활동 확대 등을 새빛 생활비 패키지의 주요 구성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		
분야	지원 사업명	주요 내용
아동	• 출산지원금 확대	첫째 자녀 50만원(신설), 둘째 자녀 100만원(확대) 지원
청소년·청년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 최대 168,000원 경기지역화폐 지급
	• 청년 주거 패키지	월세 및 이사비·중개보수비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어르신	• 대상포진 접종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비 지원
	• 어르신 버스비 지원	어르신(70세 이상), 연간 최대 28만원 지원
무상교통	• 사회초년생 버스비 지원	사회초년생 청년(19~23세), 연간 최대 28만원 지원
	• 수원시 등록 장애인 버스비 지원	수원시 거주 등록장애인, 연간 최대 28만원 지원

1) 출처: 새빛 생활비 패키지 홈페이지(2026년 1월 기준)

## □ 2026년 재정 우선순위는 ‘지역경제·일자리’…생활안정의 근본 해법으로 인식

- 시민들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일자리) 확충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
  - 2026년 수원시가 예산을 집중하여 투자해야 할 1순위 분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32.2%)가 가장 높게 나타나, 물가 부담(생활비) 대응을 단기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소득·고용 기반 강화’로 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인됨
  -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주 및 자영업자(35.8%)는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 지원, 돌봄·환경·생활서비스 연계 일자리 확대 등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지역경제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SRI 시민패널조사 개요(2025년 4/4분기)

- ✓ 조사목적 : 시정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구축, 시민들의 시정 현안 인식과 변화 파악
- ✓ 조사대상 : 수원시정연구원 패널 3,651명(유효표본 912명)
- ✓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 ✓ 조사시기 : 2025.11.24.~2025.11.28.(5일간)
- ✓ 조사내용 : 시민이 바라는 정책 과제,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이슈,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 및 수요조사

※ 본 간행물은 SRI 시민패널 2025년 4분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 *Brief*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이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위원장 정재진 |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김타균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